

부홀렉 형제는 파리 출신이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 노르망디 해안 근처 브르타뉴 지방의 대표 도시 몽생미셸(Mont Saint Michel)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이 지방 사람들은 특유의 자부심이 넘치는데, 부홀렉 형제 또한 언제나 자신들의 뿌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상기된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 그래서 고향인 브르타뉴 지역의 대표 도시(크레페의 본고장이기도 한) 렌(Rennes)에서 백지수표를 써주며 대규모 전시를 제안했을 때 그들은 길게 고민하지 않았다. 마침 부홀렉 형제는 자신들의 디자인 인생에서 오브제나 가구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더 넓은 시선으로 디자인 전반을 바라보려는 태닝 포인트를 지나고 있었다. 덕분에 3년 여의 긴 준비 기간을 거쳐 전시장은 물론 렌의 도심 곳곳에 작업을 설치하는 방대한 규모의 전시가 실현된 것이다. 총 네 개의 섹션으로 나뉘는 전시는 하루 동안 꼬박 둘러보기에도 부족하다. 3월 25일 전시가 오픈하던 날, 부홀렉 형제는 발강게 흥분된 얼굴을 감추지 못했다. 브르타뉴 뮤지엄(Frac Bretagne)에서 열린 파티에서 동생인 에르완 부홀렉은 소년 시절 자신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었던 뮤지엄에 감사 인사를 하다가 끝내 울먹이고 말았다.

담백하게 그들의 이름만으로 제목을 붙인 이번 전시 (Ronan & Erwan Bouroullec)은 브르타뉴 뮤지엄 내 도서관이자 전시 공간인 레상 리브르(Le Champs Libres)에서 4월 28일까지 열린다.



(왼쪽) 지난해 겨울호 (엘르 데코) 인터뷰 당시 파리 아틀리에에서 만난 부홀렉 형제. 그들과 나는 인터뷰는 www.elle.c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른쪽) '17 스크린스' 섹션에 설치된 작품. 얇은 플라스틱 조각을 식물의 마디처럼 엮어 발을 드리우듯 공간을 분할해 벽을 대신한다.

부홀렉 형제를 회고함

BOUROLLEC BROTHERS PRESENT

21세기 디자인을 회고할 때, 아마도 부홀렉 형제는 많은 분야에 걸쳐 가장 아이코닉한 디자이너로 남을 것이다. 아직도 창창한 부홀렉을 미리 회고할 수 있는 전시가 프랑스 렌에서 열렸다. *writer* KIM-RHEE JIEUN *editor* LEE KYONGEUN

'도시적인 꿈들' 섹션에서 볼 수 있는 도시형 설치미술 작업. 부홀렉이 꿈꾸는 도시에는 식물이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어우러진다. 모형에 쓰인 소재들은 실제로 부홀렉이 채취해서 말리고 만든 것들이다.



RÊVERIES URBAINES

이번 전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섹션인 '도시적인 꿈들'. 도시의 공공재들을 부홀렉 스타일로 재해석해 디자인했다. 하늘을 지나는 도랑, 도시 한가운데 모닥불 같이 보이는 성화, 광장에 놓인 공공 솟대로서의 파라솔 등이 직접 막상한 사운드와 함께 어우러져 실존하지 않는 공간을 거니는 기분이다. 이 비현실적 풍경들은 전시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마이애미 등 몇몇 도시에서 그들이 작업한 버스정류장 등을 실제로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전시에 쓰인 모형들도 특이한데, 석고나 목재 또는 스티로폼 등을 배제하고 직접 바닷가에서 따온 미역이나 집에서 기르던 식물들을 말리고 가공해 모형을 완성했다.

17 SCREENS

'17 스크린스'는 유럽에서 처음 선보이는 부홀렉의 공간 디자인 설치 작업이다. 인테리어보다는 완성된 가구나 오브제를 주로 선보여왔던 이들은 이번 전시에서 17가지의 각각 다른 소재(나무, 도자기, 패브릭, 플라스틱)를 이용해 스크린을 만들어 새로운 개념의 공간 미학을 제안한다. 스크린 사이를 거닐다 보면 보통의 벽도 단순한 벽이 아닌 데커레이션을 위한 캔버스로서의 역할을 상기하게 한다. 장식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것 또한 인상적이다.

RÉTROSPECTIVE

'회고'란 뜻의 단어가 썩 어울리지 않을 만큼 왕성하게 활동하는 동시에 여전히 젊은 그들이지만, 20년 동안 만들어낸 작품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중 형제가 가장 자랑하고픈 디자인의 가구와 오브제들만 세심하게 선별했는데, 완성품 외에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제작 과정에 활용한 비디오나 프로토타입 등을 모두 공개했다. 부홀렉 형제의 디자인 DNA를 훑어볼 수 있음은 물론이고 디자이너들이 하나의 완성작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다방면으로 고민하는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된다.

KIOSQUE

지역하면 '무인 기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키오스크. 사람이 지키고 있지 않아도 어떤 일을 처리해 준다는 점에서 자판기 같은 목적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홀렉 형제는 '인간을 진정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에게 인간적인 감성을 더했다. 프랑스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브르타뉴 의회 건물 안 중정에 가구 브랜드 헤이(HAY)를 통해 지난해에 출시한 아웃도어 가구 팔리사드(Palissade)를 띄워놓고 여러 개의 이동식 구조물을 배치해 중정 전체를 쾌적한

(위) 키오스크 섹션에 놓인 작은 건물. 팔리사드와 어우러져 중정을 공공 휴식 공간으로 바꿨다. (아래) 스칸디나비아 브랜드 이탈리아에서 나온 유리 화병 '루투(Ruutu)'. 유리공예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유리에 은은한 컬러를 기피해 수제화 같은 분위기를 냈다.



마침 부홀렉 형제는 자신들의 디자인 인생에서 오브제나 가구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더 넓은 시선으로 디자인 전반을 바라보려는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있었다.

휴식 공간으로 변신시켰다. 한 대의 기계가 아니라 공간 전체가 키오스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신선했다. 이 공간에서는 4월 28일까지 열리는 전시 기간 내내 콘서트나 콘퍼런스 등을 열 예정이다. ■

'회고' 섹션에는 그들의 시대별 대표작들이 총출동했다. 최근 삼성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세리프(Serif)' 텔레비전도 한편에 놓여 있다. 가전 제품 브랜드와 최초로 손잡은 케이스다.

